

##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128)」 레이와 2년 5월 15일호

【2022년(레이와 4년),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얼마 전 2020년(레이와 2년) 4월 시점 오카야마 시의 (보육원 입학) 대기 아동 수가 259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점이었던 2017년(헤세이29년) 849명에서 3년 연속 감소시켜 왔으나 목표인 '대기아동 0명'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요인으로서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의 영향 등에 의한 신청자 수의 증가와 보육교사 부족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대기 아동 대책에 대해 되돌아보면 저는 2016년에 대기 아동 수의 정의를 이용자 입장의 현실적인 것으로 재검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령 집 근처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어 곤란해하는 사람이 수백 명 있다고 해도 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근무지와 반대 방향의 먼 보육 시설에 1명의 자리라도 여유가 있다면 대기 아동은 '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1희망에서 제3희망까지로 입학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못한 아이를 대기 아동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습니다.

「대기 아동」정의를 재검토함에 따라 오카야마시의 대기 아동수는 2016년에는 729명, 2017년에는 849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의회에서 2020년(레이와 2년) 4월에 「대기 아동 제로 실현」을 선언하고 시설 정비와 보육교사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육 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도중 소비세의 증세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의 영향도 감안하여 열심히 진행시켜 온 결과, 금년 4월의 수용인원은 입학 신청자 수를 웃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수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책으로서 지금까지 오카야마시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임금 상향 조정이나 숙소 임차, 장학금 변제 등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 2016년부터 매년, 평균 약 170명의 보육교사를 새롭게 증원할 수 있었지만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보육교사가 부족해 지역 간의 보육교사 확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목표로서 2년 후의 2022년(레이와 4년) 4월까지 「대기 아동 제로」를 목표로 특히 보육교사의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금의 3%를 추가지급하는 등 시 독자적인 정책을 확고히 해 가는 동시에 이직 방지나 보육 환경의 개선에 임하는 등 보육교사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